

2007년 05월 24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크리스마스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 아니듯이, 우리 나라에서 매년 행사를 진행하는 석가탄신일은 부처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석가가 언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만, BC 563년 4월 8일(음력)이라는 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이 때의 4월은 사실은 2월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자월(子月:지금의 음력 11월)을 정월(지금의 음력 1월)로 치고 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한다면 음력 2월 8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계속 되자, 1956년 11월 네팔에서 열린 제 4차 세계 불교 대회에서는 아예 양력 5월 15일을 석가탄신일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결정에 따르지 않고 음력 4월 8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구요. (참고로 UN에서도 5월 15일날 석가탄신일 행사를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석가탄신일이 언제냐? 가 중요하겠습니까, 인류에게 진리를 전해준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뜻을 다시금 오늘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날 4월 8일을 석가탄신일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바람에,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조상님 한 분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바로 다름 아닌 '해모수' 성인이십니다.

해모수는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북부여를 세운 분입니다. 북부여는 고구려의 모태가 되는 나라이죠. 단군조선(=고조선)이 47대 단군이었던 고열가 단군께서 더 이상 '천화의 법'을 전할 자가 없는 것을 깨닫고는 스스로 법을 달고 사라져버리자, 구심점을 잃고 분열되던 시기에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의 고유 사상인 '신선도(=풍류도)'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북부여'라는 나라를 세우신 분입니다.

해모수 스스로도 오랜 수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신 성인이셨고, 역대 단군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법과 진리 위에서 교화를 목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운영해오셨습니다. 덕분에 이후 북부여가 망하고, 고구려로 법이 이어질 때까지 북부여는 대륙을 호령하며 '천화의 법'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해모수 성인께서 태어난 날을 기리며 그 분이 생전에 전하던 가르침들을 되새겨왔습니다. 그 날이 바로 해모수 성인께서 태어난 음력 4월 8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불교가 삼국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해모수=부처로 둔갑하게 됩니다. 마치 기독교가 우리 민족 고유의 '하늘님 사상'을 차용하여, 오늘날 '하느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본래 자기것인양 사용하듯이, 불교 역시 우리 나라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련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고유의 가르침에서 그대로 가져오며, 사람들이 해모수를 기리던 마음을 부처에

대한 마음으로 옮겨가게 하였습니다.

'고려사'에는 4월 8일의 행사가 국속이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국속의 기원이 불교가 우리 나라에 전래되기 이전이라는 점입니다. 즉, 오늘날 하는 연등행사 같은 것들이 본래는 부처를 기리기 위해서 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부처님도 인류의 위대한 성인으로서 우리가 공경하고 그 가르침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부처님 이전에 우리 민족에 이미 47대의 단군 성인들이 계시고, 또 북부여를 세웠던 해모수 성인이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분들 역시 부처님처럼 사람이 깨닫고, 완성에 이르는 법을 세상에 널리 알려왔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음력 4월 8일. 해모수 탄신일입니다.

해모수 탄신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